

주간 전남 농업

VOL. 259

Jeonnam Agricultural Information

2019년 11월 셋째주

주간 날씨정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저비용,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염소가 겨울을 건강하게 나려면?
정책동향 및 홍보 농산물 절도, 유전자분석 기술로 해결!
전남 시군 농정 동향 여수시, 2020년 유기농업자재 50% 지원
해외 농업정보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11. 18. 시카고 선물거래소)



전남농기원, 황금향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사업 연시회 개최



전라
남도 농업기술원
Jeollanam-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목차 및 요약

1. 주간 날씨정보 5

-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0~6도, 최고기온 : 11~15도)보다 조금 높겠음
- ▶ 강수량은 평년(1~3mm)보다 많겠음

2. 농산물 관측정보 6

- ▶ 배추, 무
- ▶ 당근, 양배추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1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5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16

- ▶ 전남농기원, 유자 부산물 이용 유자박‘크런치’개발
- ▶ 전남농업기술원, 콩 재배지 '씨스트선충' 예방 당부
- ▶ 인삼 향산화 성분 4배 높이는 가공 기술 개발
- ▶ 염소가 겨울을 건강하게 내려면?
- ▶ 유기농경지 축적된 인산, 가을 파종 '뜻거름작물'로 재활용
- ▶ 전남농기원, 황금향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사업 연사회 개최

6. 정책 동향 및 홍보안내 24

- ▶ 전남 농특산물, 강남에서 직거래장터 운영
- ▶ 전남도, (주)남해화학과 남북 협력사업 및 농자재 개발 업무협약
- ▶ 전남도, 롯데슈퍼에 로컬푸드 직매장 잇단 개장
- ▶ 농산물 절도, 유전자분석 기술로 해결!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28

- ▶ 여수시, 소라면 텃밭 수확물 취약계층 나눔 미담
- ▶ 여수시, 2020년 유기농업자재 50% 지원
- ▶ 담양군,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

- ▶ 곡성군, 멜론 생산자 조직과 지역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나서
- ▶ 곡성군, 2020년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공모사업 선정
- ▶ 곡성군, 토종 씨앗으로 재배한 농산물로 건강 밥상 선보인다
- ▶ 곡성군,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나서
- ▶ 화순군, 유기농 자재 지원사업 신청·접수...12월 31일까지
- ▶ 강진군, 영양만점 쌀귀리 재배 이상무!
- ▶ 강진군, 가을 과일로 변신한 딸기 본격 출하 시작
- ▶ 장성군, “내년부터 퇴비 검사 꼭 받아야 합니다”
- ▶ 장성군, “맛있고 몸에 좋은 장성 과일 드셔보소!”
- ▶ 완도군, 소안도 노지 감귤 4일부터 본격 출하
- ▶ 완도군, 약산흑염소 소비자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간다!

8. 해외 농업정보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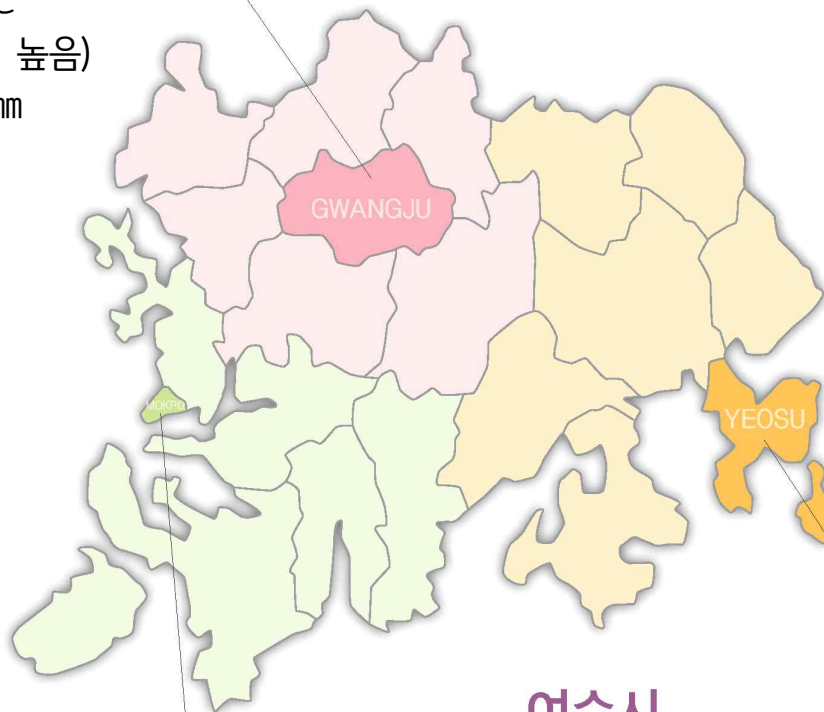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11. 18. 시카고 선물거래소)

9. 농식품 빅데이터(인증) 정보제공 홈페이지 소개 43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정보시스템
- ▶ 우수식품정보시스템

광주광역시

- 평균기온 : 10.0℃
(평년대비 2.6℃ 높음)
- 최고기온 : 14.1℃
(평년대비 1.1℃ 높음)
- 최저기온 : 5.9℃
(평년대비 3.2℃ 높음)
- 강 수 량 : 1.3mm



목포시

- 평균기온 : 9.6℃
(평년대비 0.9℃ 높음)
- 최고기온 : 12.7℃
(평년대비 1.2℃ 낮음)
- 최저기온 : 6.6℃
(평년대비 2.0℃ 높음)
- 강 수 량 : 1.4mm

여수시

- 평균기온 : 11.0℃
(평년대비 1.5℃ 높음)
- 최고기온 : 14.7℃
(평년대비 1.3℃ 높음)
- 최저기온 : 7.3℃
(평년대비 1.2℃ 높음)
- 강 수 량 : 1.4mm

11월 배추 가격 전월보다 하락, 무는 비슷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배추

● 생산 전망 : 가을배추 생산량 전년 및 평년보다 감소

- 2019년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전년 출하기 가격약세와 태풍으로 인한 유실 등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8%, 17% 감소한 10,968ha로 조사되었다.
- 가을배추 단수는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5%씩 감소한 10,065kg/10a으로 전망된다.
- 지역별 작황은 충청지역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호남, 경북지역은 정식 이후 태풍 및 집중호우로 뿌리 혹병, 습해 등의 피해가 증가하였다.
- 2019년 가을배추 생산량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21%씩 감소한 110만 4천 톤으로 추정된다.

● 가격 전망 : 11월 가격 전년 및 평년보다 높을 전망

- 11월 상품 10kg(3포기)당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5,070원) 및 평년(4,860원)보다 높으나, 전월보다는 낮은 9,000원 내외로 예상된다.
- 12월 가격은 전년(3,690원) 및 평년(4,26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

● 생산 전망 : 가을무 생산량 전년 및 평년보다 감소

- 2019년 가을무 재배면적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12%, 7% 감소한 5,344ha이었다.
- 가을무는 9월 이후 태풍 ‘링링’, ‘타파’, ‘미탁’으로 인한 뿌리 고사, 뿌리혹병, 열근 등의 발생증가로 작황이 평년보다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역별로 호남지역(고창, 영암 등) 작황은 평년보다 부진하나, 충남(당진, 태안 등)은 10월 상순 이후 적절한 기상과 철저한 생육 관리로 평년수준의 작황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가을무 전체 생산량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18%씩 감소한 38만 3천 톤 내외로 전망된다.

● 가격 전망 : 11월 가격 전년보다 높을 전망

- 11월 외대무 가격은 가을무 출하량 감소로 가격이 낮았던 전년(6,130원) 및 평년(8,070원)보다 상승한 20,000원/20kg 내외로 전망된다.
- 순별 가격은 가을무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하락하겠으나, 가을무 저장으로 출하가 조절될 경우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11월 다발무 5톤 트럭당 상품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423만 원) 및 평년(375만 원)보다 높을 전망이다.



당근

● 생산 전망 : 가을당근 생산량 평년보다 감소

- 2019년 가을당근 재배면적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8%, 15% 증가한 250ha로 전망된다.
- 단수는 10월 상순 태풍으로 생산비중이 높은 영남지역의 작황이 부진해져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6%, 19% 감소한 2,544kg/10a으로 추정된다.
- 가을당근 생산량은 전년보다 1% 증가하나, 평년보다는 7% 적은 6,400여 톤으로 전망된다.

● 가격 전망 : 11월 가격 전년 및 평년보다 높을 전망

- 11월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43,680원)과 평년(28,800원)보다 높은 5만 원/20kg 내외로 전망된다.
- 12월 가격도 출하량 감소로 전년(29,250원) 및 평년(22,03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배추

● 생산 전망 : 가을양배추 생산량 전년 및 평년보다 감소

- 2019년 가을양배추 재배면적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8%, 2% 증가한 646ha로 추정된다.
- 단수는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5%, 13% 감소한 4,202kg/10a으로 예상된다.
- 주산지인 충청(서산, 괴산, 당진) 및 호남(무안, 진도, 해남)지역의 가을양배추는 태풍 영향으로 뿌리 돌림 피해를 입어 결구가 원활하지 못하였고, 뿌리혹병, 불병 등의 발생이 증가하였다.
- 가을양배추 전체 생산량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8%, 12% 감소한 2만 7천 톤으로 전망된다.

● 가격 전망 : 11월 가격 전년 및 평년보다 높을 전망

- 11월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5,490원)과 평년(4,830원)보다 높은 8,000원/8kg 내외로 전망된다.
- 12월 가격도 출하량 감소로 전년(4,290원)과 평년(5,11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품목별 도소매 정보

식량작물

(2019. 11. 18. 기준 / 단위 : 원)

쌀(일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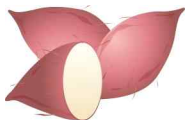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8)	1주일전 (11/11)	전년대비	
20kg	47,160	47,300	↓	4.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5,960	49,555	39,070	↑	20.7

콩(백태)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8)	1주일전 (11/11)	전년대비	
35kg	189,000	190,000	↓	0.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6,400	190,050	164,710	↑	14.7

고구마(밤)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8)	1주일전 (11/11)	전년대비	
10kg	24,800	25,200	↓	29.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6,880	35,200	23,607	↑	5.1

감자(수미)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8)	1주일전 (11/11)	전년대비	
20kg	23,400	22,500	↓	49.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1,220	46,350	32,460	↓	27.9

식량작물

배추(가을)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8)	1주일전 (11/11)	전년대비	
20kg	11,000	9,100	↑	48.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	7,400	6,055	↑	81.7

양배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8)	1주일전 (11/11)	전년대비	
35kg	9,900	9,700	↑	31.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060	7,525	6,325	↑	56.5

오이(다다기계통)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8)	1주일전 (11/11)	전년대비	
10kg	63,333	54,667	↑	55.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6,333	40,833	43,230	↑	46.5

애호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8)	1주일전 (11/11)	전년대비	
20kg	15,200	15,000	↓	38.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1,680	24,750	20,423	↓	25.6

채소류

건고추(화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8)	1주일전 (11/11)	전년대비
30kg	432,000	432,000	↓ 26.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30,000	586,000	473,000	↓ 8.7

풋고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8)	1주일전 (11/11)	전년대비
10kg	47,800	57,600	↑ 34.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8,360	35,450	46,590	↑ 2.6

마늘(깐마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8)	1주일전 (11/11)	전년대비
20kg	90,000	90,000	↓ 30.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90,000	130,000	130,000	↓ 30.8

양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8)	1주일전 (11/11)	전년대비
20kg	12,000	11,700	↓ 15.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0,520	14,125	20,008	↓ 40.0

당근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8)	1주일전 (11/11)	전년대비
20kg	54,600	56,600	↓ 7.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5,520	58,900	39,250	↑ 39.1

대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8)	1주일전 (11/11)	전년대비
1kg	1,840	1,760	↓ 8.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60	2,010	1,822	↑ 1.0

파프리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8)	1주일전 (11/11)	전년대비
5kg	18,400	23,000	↓ 21.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6,600	23,500	19,773	↓ 6.9

수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8)	1주일전 (11/11)	전년대비
1개	21,400	15,800	↑ 53.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5,840	13,950	10,350	↑ 106.8

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8)	1주일전 (11/11)	전년대비
10kg	35,600	33,200	↑ 4.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8,200	34,050	25,197	↑ 41.3

방울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8)	1주일전 (11/11)	전년대비
5kg	28,200	18,800	↑ 29.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0,000	21,750	17,457	↑ 61.5

과일류

사과(후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8)	1주일전 (11/11)	전년대비	
10kg	39,200	31,200	↑	2.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	38,150	36,226	↑	8.2

배(신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8)	1주일전 (11/11)	전년대비	
15kg	47,400	40,000	↑	8.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7,040	43,750	37,053	↑	27.9

참다래(수입)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8)	1주일전 (11/11)	전년대비	
10kg	40,800	41,800	↓	0.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1,600	41,000	42,400	↓	3.8

축산물(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8)	1주일전 (11/11)	전년대비	
100g	8,966	9,042	↑	10.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8,945	8,093	7,852	↑	14.2

닭고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8)	1주일전 (11/11)	전년대비	
1kg	5,248	5,205	↑	3.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381	5,093	5,379	↓	2.4

특용작물

참깨(백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8)	1주일전 (11/11)	전년대비	
30kg	492,000	495,000	↓	0.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2,200	494,800	508,533	↓	3.3

느타리버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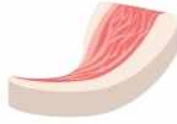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8)	1주일전 (11/11)	전년대비	
2kg	16,200	15,200	↑	19.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4,640	13,550	12,717	↑	27.4

새송이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8)	1주일전 (11/11)	전년대비	
2kg	8,100	8,100	↑	15.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8,360	7,025	7,913	↑	2.4

돼지고기(삼겹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8)	1주일전 (11/11)	전년대비	
100g	1,704	1,653	↓	4.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799	1,790	1,848	↓	7.8

계란(특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8)	1주일전 (11/11)	전년대비	
30개	5,532	5,530	↑	8.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492	5,118	5,559	↓	0.5

축산물(소매가)

우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8)	1주일전 (11/11)	전년대비	
1L	2,615	2,613	↓	0.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611	2,622	2,547	↑	2.7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9. 11. 18. 기준 / 단위 : 원)

한우(천원/600kg)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5,819	5,812	5,750	↑ 0.1	↑ 1.2
거세	6,769	6,650	6,561	↑ 1.8	↑ 3.2

한우송아지(천원/6~7월)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3,288	3,271	3,198	↑ 0.5	↑ 2.8
수	4,004	4,070	3,808	↓ 1.6	↑ 5.1

육우(천원/60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316	3,379	3,743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9	↓ 11.4

젖소수송아지(천원/7일령)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413	409	264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0	↑ 56.4

돼지(천원/11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33	313	326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6.4	↑ 2.1

육계(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802	668	1,015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20.1	↓ 21.0

계란(원/특란10개)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1,146	1,171	910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2.1	↑ 25.9

오리(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380	2,400	2,433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0.8	↓ 2.2

*자료 출처 :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 우리나라산‘파프리카’의 중국 수출길이 열린다

- 2007년 수입허용 요청 이후 12년만에 검역협상 타결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9.11.13일에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과 Wang Lingjun(王令浚, 왕링준) 중국 해관총서 부서장(차관급)이 “한국산 파프리카의 대중국 수출을 위한 검사 및 검역요건”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이하 검역본부)는 그 간 중국 측과 오랜 검역협상을 추진해 왔으며, 12년 간의 협의 끝에 검역요건에 최종 합의함으로써 국산 파프리카의 중국 수출이 가능하게 된 것임을 밝혔다.
- 금번 합의한 검역요건에 따라 국산 파프리카를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측 수출선과장 등록, 중국 측의 최종 승인 및 한·중 검역관 합동 수출검역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 국산 파프리카의 대(對)중국 수출검역요건 타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중국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국내산 파프리카의 대부분이 일본시장을 중심으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중국 진출은 특정국가에 집중된 수출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한편 시장 다변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전남농기원, 유자 부산물 이용 유자박‘크런치’개발

- 유자, 씨부터 박까지 버릴게 하나 없네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는 유자즙 가공 시 발생하는 유자박을 이용하여 크런치를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 국내 유자 가공품은 유자차, 유자과즙이 60% 이상 차지하며 최근에는 식품조리용 유자소스, 목욕, 미용품 등에 첨가되는 등 주로 단순 소재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 유자즙 가공 시 발생하는 부산물인 유자박은 전체의 80~90%를 차지하고 있으며 활용처가 넓지 않아 사료 등으로 사용되거나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도 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는 유자박을 이용한 크런치 제품을 개발하여 지난 7일 해남군청에서 소비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시식 및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 기존의 크런치는 유자분말을 첨가하여 제조 되고 있지만 이번 과수연구소에서 개발한 유자박 크런치는 유자과육이 씹히도록 만들어 유자향과 맛이 더해진 큰 장점이 있는 제품이다.
- 이번 선호도 조사에서 많은 소비자들은 크런치에 대해 “신선하고 풍미가 좋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유자 부산물의 활용을 위해 더 많은 가공제품을 개발할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 전남농업기술원, 콩 재배지 '씨스트선충' 예방 당부

- 콩 연작지에 주로 발생, 돌려짓기 효과적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최근 전국 콩 재배지로 확산되고 있는 씨스트선충 피해 예방법을 소개하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씨스트선충은 작물의 뿌리에 기생하여 큰 피해를 주는데, 국내 콩 재배지에는 콩씨스트선충과 반짝이씨스트선충이 주로 발생한다.
- 씨스트란 암컷 성충의 모양이 표주박 또는 서양배 모양과 비슷하다는 뜻이다. 콩은 물론 팔에서도 피해가 나타나는데, 피해를 받은 작물은 지상부에 뚜렷한 증상이 없다가 생육중기 이후에 갑자기 잎이 노랗게 되고, 심하면 낙엽이 되기도 한다.
- 한편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018년부터 전남지역 21개시·군 1,300여 농가를 조사한 결과 약 11% 정도가 씨스트선충에 감염된 것을 확인하였다.
- 특히 영광, 구례, 강진, 곡성, 함평, 무안 등이 상대적으로 발생이 많았으며, 콩을 연작하는 경우에 밀도가 매우 높았다.
- 씨스트선충 종류로는 콩씨스트선충이 우점종이었고, 일부 반짝이씨스트선충이 발생하였는데, 두 종이 혼재하는 경우도 4곳이 있었다. 또한 뿌리혹선충과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해가 더욱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선충 방제법은 현재까지 등록된 농약이 없으므로 돌려짓기 등 재배적인 방법에 치중해야 한다. 특히 참깨 등으로 돌려짓기를 하면 선충 밀도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 인삼 향산화 성분 4배 높이는 가공 기술 개발

- 볶으면 폴리페놀 함량 높아져... 소비자 기호도도 올라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인삼의 향산화 성분을 최고 4배까지 늘리고 특유의 향은 없애 소비자 기호도를 높이는 가공 기술을 개발했다.
- 인삼은 75% 이상 수분으로 수확 후에는 부패하기 쉬워 오래 보관하기가 어렵다.
- 가공 제품은 주로 가루(분말) 형태로 시판되고 있으며, 대부분 건조 과정만 거친 백삼 분말이나 찌서 말린 홍삼 분말이어서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 농촌진흥청은 인삼 분말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고 품질은 높이기 위해 4년근 인삼을 뜨거운 바람에 말린(열풍건조) 뒤 볶아 유용 성분이 가장 많은 조건을 연구했다.
- 그 결과, 140도(℃) 이상에서 일정 시간 볶았을 때 총 폴리페놀 함량이 가공 전보다 약 4배, 진세노사이드인 Rh1 함량은 3.5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폴리페놀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의 산화(노화)를 억제하는 향산화 효과, 항암·항염 효과가 있다. 진세노사이드 Rh1은 간 보호, 항종양 작용, 혈소판 응집 억제 작용 등을 한다.
- 이 가공법은 볶으면서 인삼 특유의 향이 사라져 기존 백삼 분말보다 향에 대한 소비자 기호도가 1.8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에 관한 2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관련 업체와 기술 이전을 논의하고 있다.
- 앞으로 향산화 성분이 높은 인삼 분말이나 과자 등 다양한 품목으로 만들 수 있어 소비 촉진과 가공 산업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 : 농촌진흥청

● 염소가 겨울을 건강하게 나려면?

- 축사 보온 · 환기 신경 쓰고, 사료 10% 이상 더 먹여야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겨울철 염소 농가의 피해 예방을 위해 축사 환경과 사양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최근 염소의 소비형태가 약용에서 육용으로 바뀌고 있으며 귀농·귀촌 인구가 늘면서 염소 사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 염소는 2010년 이후 사육 마릿수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사육농가의 규모도 커지고 전업화가 진행되는 추세다.
 - 총/호당 염소 사육 마릿수 : ('11) 24만 8천/17.6 → ('16) 34만 9천/29.4 → ('18) 54만 2천/37.0
- 겨울철에 축사관리는 가축의 호흡기성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므로 환기 조절에 신경을 써야 한다.
- 연중 번식을 실시하는 농가는 겨울철에도 어린 염소가 많이 태어나므로 축사 여건에 맞는 보온 기구를 이용해 따뜻하게 해준다.
- 축사가 습하지 않도록 깔짚을 충분히 깔아주고 제분작업을 주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다.
- 급수시설이 얼어 터지지 않도록 가온급수 장치를 이용하는 농가도 배관이 노출된 지점이나 연결부위 등을 꼼꼼하게 점검한다.
- 겨울철에는 체온 유지를 위해 열량 요구량이 증가하므로 사료를 10% 이상 추가로 공급해줘야 한다.
- 염소의 면역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충분한 단백질과 미네랄을 공급하며, 겨울이 오기 전 구제역 예방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 임신 또는 포유(젖먹이)중인 어미 염소는 사료 급여량을 50%까지 늘리기도 하며, 비육염소도 증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사료 공급이 필요하다.
- 염소는 물 섭취가 부족하면 요도염, 방광염 등의 질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먹인다.
- 피부병이 있거나 설사증이 있는 어린 염소는 반드시 건강한 염소와 분리시켜야 질병 전파를 막을 수 있다.
- 방목을 하는 농가는 종합구충제를 먹이고 방목지에 빙판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 방목지나 운동장이 있는 농가의 경우 햇살이 충분한 시간대에는 염소를 축사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다만 분만이 가까워진 어미 염소나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염소는 방목을 피하는 것이 좋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이성수 가축유전자원센터장은 “염소는 겨울이 되면 사양관리뿐만 아니라 차단 방역, 화재 예방 등 축사 관리도 중요하므로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유기농경지 축적된 인산, 가을 파종 ‘뜻거름작물’로 재활용

- 헤어리베치와 보리 함께 심으면 토양 속 인산 이용률 높아져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유기농경지에 인산이 집적된 경우, 뜻거름작물을 심어 토양 속 쌓인 인산을 재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 뜻거름작물은 일반적으로 가을에 파종해 이듬해 농작물 재배 전 갈아엎어 거름으로 사용하는데, 작물에 양분과 유기물을 공급하고 토양 물리성을 개선하는 등 여러 장점이 있다.
- 작물에 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토양에 투입된 인산은 약 10%만 작물에 이용되고 대부분은 이용되기 어려운 형태로 고정돼 토양에 쌓이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 인산이 토양에 쌓이면 작물의 양분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고, 주변 하천으로 유입되면 부영양화의 원인이 돼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
- 국내에서는 토양에 쌓여 이용되지 않은 인산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자재로 구연산, 킬레이트제 등이 활용되고 있으나 유기농경지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워 유기농경지에서 활용 가능한 인산 관리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 이번 연구 결과, 유기농경지에서 뜻거름작물로 헤어리베치를 심는 것만으로도 쌓여 있는 인산을 작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뜻거름작물로 보리, 헤어리베치, 보리와 헤어리베치를 혼합해 재배한 결과, 이용 가능한 수용성인산 함량이 헤어리베치 처리에서 156~180 mg/kg으로 뜻거름작물을 심지 않은 경우(119~139)나 보리(122~124)만을 심었을 때보다 최대 48% 증가했다.

- 또한 식물이 활용하기 어려운 유기태인산은 이용하기 쉬운 무기태인산으로 바뀌주는 인산가용화효소 활성이 헤어리베치를 재배한 곳에서 약 20% 증가했다.
- 그러나 헤어리베치를 단독으로 재배할 경우, 월동률 저하 등으로 안정적인 생체량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보리를 함께 재배하는 것이 좋다. 또한 헤어리베치의 입모을 향상을 위해 10월 초순까지 파종하는 것이 좋다.
- 이 경우 풋거름작물의 안정적인 생체량 확보도 가능하고 풋거름작물 체내에 흡수됐던 인산을 다시 토양으로 공급해 이후에 심는 작물의 인산 이용률도 높아진다.
-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 고병구 과장은 “농경지에 인산이 집적돼 있을 때 추가적으로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풋거름작물만으로 인산이용률을 개선할 수 있어 유기농가의 작물 양분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관련 연구 결과를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공유해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전남농기원, 황금향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사업 연사회 개최

- 전남의 황금향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경영모델 제시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13일 고흥군 도덕면 그린농원(대표 김정무)에서 황금향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사업 연사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 이번 연사회는「황금향」생산비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 사업으로 시설 원격제어를 통한 편리한 생산과 자동화된 선별, 출하 조절이 가능한 저온저장고, 고객에게 균일한 품질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당도측정 등 재배에서 판매까지 고려된 모델을 소개했다.
- 고흥에서 만감류 재배는 30여 농가가 7ha의 시설하우스에서 약 50여 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만감류 재배농가에게 균일한 농산물로 규모화를 가능하게 하고, 출하시기 조절로 다양한 판로개척을 시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황금향 시설재배에서 1kg당 생산비가 전년도 4,690원에서 2,950원으로 37.1% 절감되었고, 노동투입시간은 2,820시간에서 1,780시간으로 36.8%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농가매출(0.7ha 기준)은 전년도에 비해 80% 증가한 9천만 원으로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실용화 경영모델이 농가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도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생산비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생산비 절감과 부가가치 향상 아이디어를 경진하여, 선정된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 지원 사업이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전남 농특산물, 강남에서 직거래장터 운영

- 27일까지 김스클럽 강남, 야탑, 송파점서 200여 품목 판매 -

- 전라남도는 오는 27일까지 서울 소재 김스클럽에서 도농상생을 위한 전남 농특산물 산지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직거래장터에선 김스클럽 강남점과 야탑점, 송파점, 3개 매장에서 62개 업체의 200여 농특산품을 판매한다.
- 김스클럽은 이랜드리테일에서 운영하는 식품 전문 중대형 할인매장이다. 전국에 37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선하고 값싼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이들을 공략하는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여수 돌산갓김치, 장흥 표고버섯, 영광 굴비와 모시잎송편, 진도 멸치 등 지역 농수특산물을 시장 가격보다 20~30% 저렴하게 판매한다. 다가오는 김장철을 맞아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 재료도 판매한다.
- 이외에도 장성 대표 농산물인 사과가 출하되는 시기인 만큼 장성 사과 판매코너와 시식행사를 실시한다. 영암에서 생산한 배, 대봉, 단감, 고구마 등을 비롯한 전남 농수특산물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출처 :전라남도



전남도, (주)남해화학과 남북 협력사업 및 농자재 개발 업무협약 •

- 전남농기원 대북지원 농자재 및 다목적 비료개발 공동 추진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과 (주)남해화학(사장 이광록)은 남북 협력사업 지원 및 양파 등 주요 작물에 대한 다목적 농자재 개발을 위해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12일 밝혔다.
-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북 지원을 위한 자재 개발과 고령화 및 농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다목적 맞춤형 비료 등 농자재를 공동 개발하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그동안 전남농업기술원과 (주)남해화학은 남북 협력사업을 위한 농자재를 개발하여 감자, 배추 등 주요 작물에 대한 재배시험을 완료하였다. 특히, 감자에 대한 효과가 우수한 농자재를 선발하여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대북 지원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 김성일 전남농업기술원장은 “양 기관이 대북지원용 농자재 개발을 통한 남북 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 한편, (주)남해화학 이광록 사장은 “전남농업기술원과 맞춤형 다목적 농자재 및 대북 지원용 자재 개발에 공동으로 협력하여 우리 농업인들과 북녘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북 지원용 농자재 개발과 농업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재 개발을 위해 민관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농업 현장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전남도, 롯데슈퍼에 로컬푸드 직매장 잇단 개장

- 광주 풍암, 두암, 문흥점 이어 봉선점까지...140여 농가 고정 납품 -

- 전라남도는 농산물 판로 확보가 어려운 영세 고령농에게 새 판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롯데슈퍼 광주 봉선점에 전남 로컬푸드 직매장을 추가로 개장했다고 16일 밝혔다.
- 광주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롯데슈퍼 봉선점은 기존 ‘신선식품 매장’을 ‘화순 도곡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바꿨다.
- 화순 도곡에서 농사짓는 45농가가 파프리카, 배추, 무 등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200여 품목을 납품해 판매한다.
- 로컬푸드는 중간 유통단계를 없애 유통비용이 줄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다. 생산자에게는 판로 확대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1석 2조 효과가 있다.
- 전라남도는 롯데슈퍼와 손잡고 지난 7월 풍암점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처음 개장한 이후 두암점과 문흥점 등 4개 점포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잇따라 열었다.
- 전남 로컬푸드 직매장은 4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참여 농가는 7천900명으로 직매장별로 평균 202명이 참여하는 셈이다. 10월 말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은 696억 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출처 : 전라남도



농산물 절도, 유전자분석 기술로 해결!

- 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자체 개발한 첨단 유전자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최근 10여건의 종자 관련 유전자분석 결과를 검찰·경찰 등에 제공하고 사건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 (사례1) 지난해 8월 경북의 한 고추밭에서 약 300kg(500근)의 고추 도난 사건이 발생하였다. 종자원은 관할 경찰서의 의뢰를 받아 인근 피의자 3명의 집에서 보관 중이던 고추를 유전자 분석한 결과, 피의자는 다른 품종을 재배하였다고 하나 피해자가 도난당한 품종과 동일한 품종임을 확인하였고 ○○경찰서는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였다.
- (사례2) 충북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건고추 약 70kg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관할 △△경찰서는 국립종자원의 유전자분석 결과를 근거로 피의자가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등 수사과정에서 유전자분석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바 있다.
- (사례3) 지난해 문화재 연구기관이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고선박의 선체 내부에서 출토된 씨앗류의 수종 및 품종 분석을 요청하였으며, 오랜 기간 노화되어 분석이 어려운 종자임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분석을 통하여 감 종자임을 밝혀 고고학적 고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국립종자원은 현재 벼, 고추 등 주요 31개 작물의 5,300여 품종에 대한 분자표지 및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였으며, 개발된 분석법은 종자원 이외에 경찰청, 지자체 등 여러 관련기관에서 종자분쟁 해결 등에 활용되고 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여수시, 소라면 텃밭 수확물 취약계층 나눔 미담

- 11월 고구마 수확해 100박스 경로당 등 전달 -

- 여수시 소라면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텃밭에서 재배한 수확물을 이웃과 나눠 미담이 되고 있다.
- 소라면에 따르면 지난 6월 감자, 상추 등을 재배하여 어려운 이웃에 나눔 활동을 한데 이어, 11월에는 고구마 100박스를 수확했다.
- 수확물은 지난 7일 갯노을봉사단, 이장단, 주민자치위원,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등이 참여하여 경로당 49개소, 진달래마을요양원, 취약계층 도시락배달 세대 등에 고구마 1상자씩을 전달했다.
- 수확한 고구마 중 일부는 판매하여 판매수익금은 연말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할 계획이다.
- 최영철 소라면장은 “앞으로도 활발한 나눔 활동을 통하여 정이 넘치는 소라면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여수시



여수시, 2020년 유기농업자재 50% 지원

-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등...연말까지 읍면동 접수 -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올 연말까지 2020년 유기농업자재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 시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녹비작물 종자와 유기농업자재 등의 구입비 50%를 지원한다.
- 유기농업자재의 경우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이 대상이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자를 우선 지원한다. 단, 녹비작물 종자는 일반 농업인도 신청 가능하다.
- 참여 희망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농업 경영비 절감과 농약·화학비료 사용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접수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신청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여수시



담양군,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

- 공공비축미 40kg 포대벼 기준 총 83,612가마, 3,344톤 매입 -
- 태풍 피해 벼 30kg 포대벼 기준 예상희망 물량 74,320가마 2,229톤 -
-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11일 담양읍을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각 읍면에서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를 매입한다.
- 올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은 새일미와 신동진 2개 품종이며, 총 매입량은 40kg 포대벼 기준으로 타작물 인센티브 물량을 포함하여 83,612가마를 매입할 계획이다.
-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중간정산금 40kg당 3만 원을 농가가 수매한 직후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12월 말까지 최종 정산해 지급한다.
- 또한 태풍 피해를 입은 벼의 경우 품종(찰벼 포함, 유색벼, 가공용벼 제외) 제한 없이 농가 희망물량 전량을 매입한다. 사전 희망량 조사결과 30kg 포대벼 기준 74,320가마를 매입할 예정에 있다.
- 한편 군은 작년부터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외 벼 품종의 수매를 막기 위해 품종 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품종검정제도는 육묘업체를 포함해 매입대상 농가 중 5%를 대상으로 벼 품종검정(DNA검사)을 실시, 매입대상 품종인 새일미와 신동진 외 품종이 20%이상 혼입된 농가를 주민등록상 가족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서 제한시키는 제도로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출처 : 담양군



곡성군, 멜론 생산자 조직과 지역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나서 •

- 2020년 품목생산자조직 경영·마케팅 협력시스템 구축 공모사업 선정 -

-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전남 농업기술원 주관 ‘2020년도 품목생산자조직 경영·마케팅 협력시스템 구축 공모사업(이하 ‘협력구축사업’)’에 선정됐다.
- 협력구축사업은 농업인연구회나 작목반과 같은 생산자 조직을 대상으로 생산자 조직과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경영·마케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곡성군은 최종 선정된 5개 시군 중 최대인 1억 원의 사업비를 배정받았다. 사업을 통해 명품 곡성멜론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할 예정이다.
- 먼저 곡성명품멜론연구회를 육성하고 계획 생산 및 계획 출하 약정관리, 멜론 품질향상을 위한 생육관리에 적극 나선다. 또한 조직역량강화 교육 및 맞춤형 현장컨설팅, 농산물 판매홍보활동, 지역유통시스템 연계 협력을 통한 고정거래처 발굴 등 생산자 역량강화와 시장확대를 위한 활동도 추진한다.
-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연내에 곡성명품멜론연구회 회원을 선정하고 협의회를 추진해 생산 및 출하 계획을 주체적으로 수립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곡성군



곡성군, 2020년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공모사업 선정 •

- 전남 농업기술원으로부터 3년 간 최대 10억 지원 받아 토란 성장기반 확대 -

-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 사업 선정에 따라 곡성군은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간 최대 1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최대 1년차에 5억 원, 2년차에 3억 원, 3년차에 2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사업 기간 동안 계획 및 이행결과를 평가해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 곡성군은 지역의 특화작목인 토란의 성장기반을 확대 조성하는 내용으로 공모에 뛰어들었다. 1년차 사업비로 확보한 5억 원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고품질 토란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 토란가공시설 및 가공품 개발에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곡성 토란 품질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과 함께 곡성토란 대표품종 선발시험, 연작장해 대비 작부체계 마련 등을 추진함으로써 농가소득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전국 최대 주산지 명성에 걸맞는 고품질 곡성 토란을 생산하도록 노력하겠다. 나아가 노동력 절감과 유통 안정화, 가공품 및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곡성군



곡성군, 토종 씨앗으로 재배한 농산물로 건강 밥상 선보인다 •

-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프로 농사꾼’ 토종 밥상 만들기 행사 -

- 오는 13일 곡성군(군수 유근기) 옥과면 설옥마을 유선각에서 토종 농산물로 차려낸 밥상을 맛볼 수 있는 행사가 펼쳐진다.
- 곡성군은 지난 5월부터 주민을 대상으로 프로농사꾼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귀농인과 젊은 농업인들은 토종 씨앗 재배기술을 전수 받아 토종작물을 직접 재배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땀 흘려 일군 토종작물을 수확하고, 오는 13일 토종밥상 차리기라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되는 행사에서는 토종씨앗으로 재배한 작물을 이용해 만든 음식을 시식해볼 수 있다. 또한 옥과면 설옥마을 주민들과 학습자들은 토종 씨앗 재배기술을 주제로 토크쇼를 진행한다. 오후에는 교육결과로 얻게 된 토종씨앗을 전시하고, 작은 장터를 열어 그간의 성과물을 함께 나누는 자리도 마련된다.
- 곡성군에서는 이번 프로농사꾼 교육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토종씨앗 재배를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이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주관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된만큼 내년에도 맞춤형 평생교육 과정을 개발해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곡성군



곡성군,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나서

- 16일까지 산물벼, 26일까지 건조벼 매입 예정 -

- 타 품종 혼입 시 5년간 공공비축미곡 매입 참여 제외 유의 -

-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지난 11일 오곡면, 죽곡면을 시작으로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나섰다.
- 곡성군은 올해 공공비축미곡으로 40kg들이 총 106,770가마(건조벼 91,770, 산물벼 15,000)을 매입할 예정이다. 산물벼는 신동진 품종에 대해 16일까지 매입을 진행하며, 건조벼는 신동진, 새일미 두 품종으로 26일까지 매입할 계획이다. 40kg 포대 당 3만 원의 중간정산금이 수매 당일 지급되며 전국 쌀 가격이 결정되는 12월 말에 최종 매입 가격을 결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 매입에 참여하는 농가는 타 품종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비축미곡 품종검정제도에 따라 타 품종이 20%이상 혼입된 경우 5년간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품종검정제도는 수매 제한 품종의 매입 방지와 정부 양곡의 품질 향상을 위해 실시된다. 전체 매입 대상 농가의 5%를 선정해 수매 현장에서 농가 입회하에 출하된 포대의 시료를 채취해 매입 품종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출처 : 곡성군



화순군, 유기농 자재 지원사업 신청·접수...12월 31일까지 •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친환경 농산물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군은 '2020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유기농업 자재와 녹비작물 종자 지원 신청을 오는 12월 31일까지 경작농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 이 사업은 유기농업 자재, 녹비작물 종자 구매 비용의 50%를 지원해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화학농약과 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다.
- 녹비작물 종자 지원 신청은 2020년 9월~10월에 파종하기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 유기농업 자재 지원 신청은 유기농·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 농가로 친환경 의무 자조금을 납입한 농업인만 신청 자격이 있다.
- 녹비 종자는 ha당 헤어리베치 60kg(12포/5kg), 청보리 140kg(7포/20kg), 호밀 160kg(8포/20kg), 자운영 50kg(2.5포/20kg)을 신청할 수 있다. 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운영은 2000㎡ 이상이어야 1포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유기농업 자재는 1ha당 유기인증 농가는 200만 원, 무농약인증 농가는 150만 원까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http://tims.rda.go.kr>)에 공시된 품목 중 본인이 희망하는 품목을 신청하고, 1차 확정 후 구매해 사용하고 친환경인증 이후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출처 : 화순군



강진군, 영양만점 쌀귀리 재배 이상무!

- 가족단위 관광객과 모링가 비누·쿠키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즐겨 -

- 강진군이 월동작물 대표 소득작물인 쌀귀리의 파종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구슬땀을 흘리며 파종을 마친 농가들은 내년 여름의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고 있다.
- 겨울 날씨가 온화해 쌀귀리 재배 적지로 평가받는 강진군은 2010년부터 이어진 다년간 재배 경험으로 전국 최고 품질의 쌀귀리를 생산하고 있다. 올해는 150농가가 약 420ha 면적에 쌀귀리를 파종하였는데, 이는 작년보다 120ha 증가한 면적이다.
- 쌀귀리의 파종기간은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로 너무 일찍 파종하면 겨울이 오기 전에 어린 이삭이 생겨 얼어 죽는다. 반대로 늦게 파종하면 추위에 가장 약한 시기에 월동하게 되어 수확량이 감소하는 만큼 적기 파종이 매우 중요한 작물이다.
- 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경지의 특성에 맞춰 파종시기, 배수로 정비, 비배 관리 등 현장 기술 지도를 실시하여 올해의 쌀귀리 파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파종기간 동안 기상 조건이 유래 없이 좋아 내년에도 최고품질의 쌀귀리를 수확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상 조건이 좋은 대신, 파종량이 많아 높은 입모율로 인해 생육 중후기에 도복이 우려되는 필지는 월동 후 생육재생기 추비 시용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출처 : 강진군



강진군, 가을 과일로 변신한 딸기 본격 출하 시작

- 전남 강진군에서 딸기의 본격 출하가 시작됐다. 특유의 향기와 달콤한 맛으로 겨울철의 대표 과일로 손꼽히는 딸기가 재배기술 발달로 수확시기가 점점 빨라져 11월 초부터 맛볼 수 있게 됐다.
- 지난해 강진군에 귀농해 도암면 계라리에 정착한 정철(35)씨의 하우스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 딸기를 출하하고 있다. 평균 가격은 1kg당 25,000원 정도로 상당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 딸기는 꽃을 피운 다음 밭에 심어야 빨리 수확을 할 수 있는 작물이라 모종을 만들때 많은 정성이 필요하다. 반면 꽃이 없는 딸기 모종을 심었을 때는 오히려 수확시기가 더욱 늦어져 1월 이후에야 수확할 수 있다.
- 강진군농업기술센터는 딸기재배 농가들에게 육묘기술부터 꼼꼼히 교육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육묘 전문 연구를 통해 재배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딸기 전문팀에서 현장 컨설팅을 병행하며 정착을 돕고 있다. 정씨의 경우도 귀농교육 뿐만 아니라 군농업기술센터가 제공하는 재배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이승옥 강진군수는 “딸기농사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모종 만들기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강진군은 지난해부터 농가들에게 육묘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딸기재배농업인들의 기술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강진군



장성군, “내년부터 퇴비 검사 꼭 받아야 합니다”

- 장성군이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홍보에 나섰다.
-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퇴비를 직접 처리하는 축산농가가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정해놓은 규정이다. 배출시설 허가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연간 2회, 신고규모 축산농가는 연간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를 3년 간 보관해야 한다.
- 또 퇴·액비 관리대장도 꾸준히 기록하고 3년 간 보관해야 하며, 만약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장성군은 13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에서 전국한우협회 장성군지회 회원을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당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부숙도는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치면서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가축분뇨법 제17조에 따라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의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의 부숙도 기준을 위반할 시에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 장성군



장성군, “맛있고 몸에 좋은 장성 과일 드셔보소!”

- 장성군 사과, 감 11월부터 본격 출하 -

- 장성군이 가을 제철과일인 사과와 감을 11월부터 본격 출하한다.
- 사과와 감은 장성군 내 전체 재배면적 가운데 84%(930ha)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 과일로, 매년 출하시기가 가까워오면 농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 국내 사과 재배지 가운데 최남단에서 자란 장성사과는 출하 시기가 늦은 대신, 서리를 맞아 과즙이 풍부하고 식감이 좋은 것으로 유명하다. 또 단감은 일교차가 가장 큰 최북단에서 생산되어 씨알이 굵고 맛과 당도가 높아 광주 인근에서 대부분 소비되고 있으며, 껍감으로 가공되는 대봉감은 명절 선물로 인기가 높다.
- 사과와 감에는 좋은 영양성분이 많다. 빨강계 익은 사과는 우리 몸의 면역기능을 강화시켜 각종 질병을 예방하며, 특히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루에 사과를 한 개만 먹어도 병원에서 멀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 또 감은 각종 비타민과 칼륨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이뇨작용을 도우며, 꼭지부분의 탄닌 성분은 항산화와 숙취예방에 좋다.
- 유두석 장성군수는 “청정한 장성에서 키운 사과와 감은 찬바람 불고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요즘, 당도가 최고로 올라간다”며 “맛과 건강함이 가득 담긴 장성의 제철과일들을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장성군



완도군, 소안도 노지 감귤 4일부터 본격 출하

- 올해 예상 생산량 150톤, 해풍 맞고 자라 당도 높아 -

- 새콤달콤한 완도자연그대로 노지 감귤이 10월 28일 첫 수확을 시작으로 11월 4일부터는 본격 출하된다.
- 완도 소안도 노지 감귤은 60농가에서 약 25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올해 생산량은 150t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 소안도 감귤은 많은 일조량과 해풍을 맞고 자라 당도가 높고, 밤낮의 일교차가 커 껍질이 얇고 새콤달콤한 맛이 뛰어나다
- 또한 다른 지역의 감귤에 비하여 20일 정도 장기 보관이 가능하여 한번 구입하면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좋다.
- 완도군에서는 노지감귤연구회를 중심으로 제주 및 인근 시·군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극조생종 감귤 품종 확대보급, 친환경 농자재 자가 제조, 감귤 선별기 지원, 포장박스 개선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 감귤 육성 기술을 지원하였다.
- 노지감귤연구회 최금용 회장은 “소안도라는 작은 섬에서 맛있는 감귤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많이 애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완도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감귤 생산 안정화 기술 지원과 친환경 고품질 감귤 생산 기술정립 등 완도자연그대로 감귤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완도군



완도군, 약산흑염소 소비자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간다! •

- 신제품 4종 개발 상표출원 중! 팸투어 통한 홍보 강화! -

- 완도군(군수 신우철)과 약산흑염소영농조합법인(대표 임덕길)은 지역 특산품인 약산흑염소 홍보 및 판촉 활동 강화에 나섰다.
- 동의보감에 따르면 흑염소는 지방함량이 낮아 소화기를 보하고, 기운을 끌어 올려주면 마음을 편하게 다스리고 오장을 따뜻하게 한다고 하여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다.
- 지난 완도 가을빛여행축제 기간 동안(10.25.~10.27.) 약산흑염소 떡갈비 시식회를 통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였으며, 군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져 축제기간 8백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 또한 도시 소비자 학부모와 초등학생을 초청하여 흑염소 체험 팸투어를 개최하여 흑염소 가공공장과 농장 견학, 우유먹이기 체험, 흑염소 보물찾기 등을 통해 큰 인기를 끌었다.
- 완도군에서는 약산흑염소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역량강화, 스토리텔링, 시장조사 및 체험관광프로그램 개발, 신제품과 디자인 개발, 홍보동영상 제작, 마케팅, 판매장 구축 등을 추진하여 흑염소 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 법인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기반으로 흑염소 곰탕, 흑염소 엑기스(클래식, 플러스), 흑염소 수제 떡갈비 등 4종의 제품을 개발하여 상표출원 중에 있다.
- 완도군에서는 전체 278농가, 11,258두의 흑염소를 사육하고 있으며, 약산면에서 91농가 7,557두로 전체 사육의 약67%를 차지하고 있다.

*출처 : 완도군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11. 18. 시카고 선물거래소) •

- 대두 선물가격, 미-중 무역거래에 대한 낙관론이 다시 부상하며 상승 -

- 밀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1.0% 하락했다. 밀 선물가격은 수출 수요 부진으로 인해 금요일 하락했다. 주간 밀 수출량은 23만 8,600톤으로 20만~50만 톤에 이르는 분석가들의 예측에 거의 미치지 못했다.
- 옥수수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1.2% 하락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다음 주 미국의 수확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금요일 폭락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건조한 날씨는 눈과 비로 인한 최근 수확 중단 후에 농부들이 수확을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대두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2.0% 상승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곧 완화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높아지면서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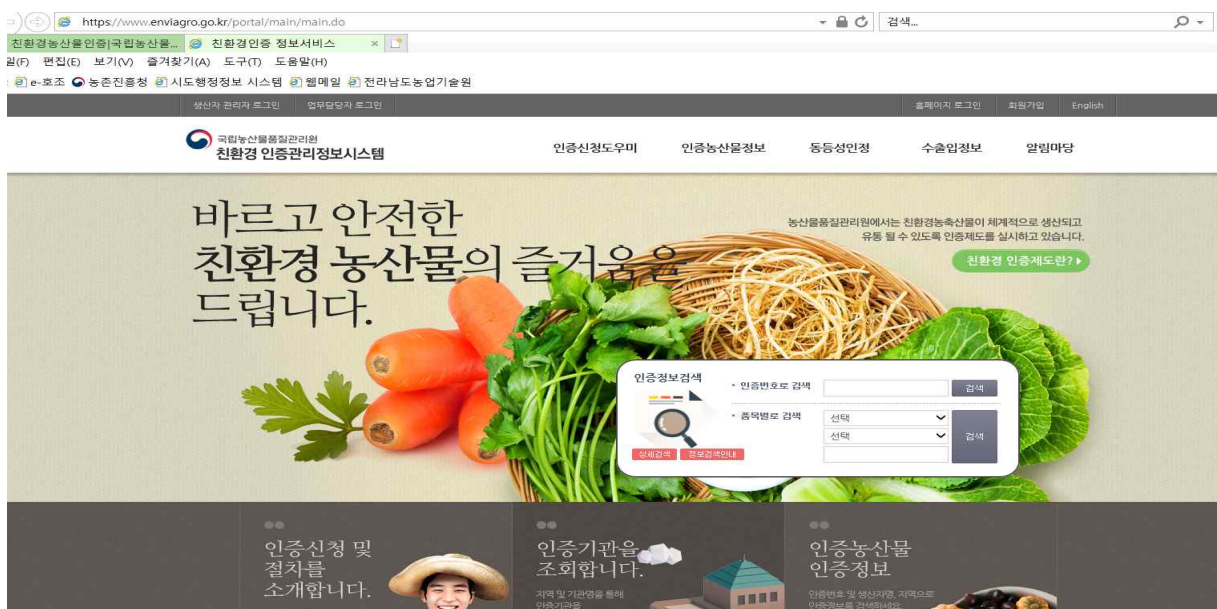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정보시스템

- 농사에 필요한 인증제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정보시스템 (www.enviagro.go.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서는 인증신청도우미, 인증농산물정보, 동등성인정, 수출입정보, 알림마당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 인증신청도우미에서는 인증신청안내, 인증기관조회를 확인할 수 있다.
- 인증농산물정보에서는 인증표시소개, 인증정보, 직거래, 부정유통신고, 친환경인증통계, 행정처분을 확인할 수 있다.
 - 인증정보는 기본검색, 상세검색, 일괄검색 가능
 - 직거래는 기본검색, 상세검색 가능
 - 친환경인증통계는 조회구분, 업무구분, 기간, 시/도, 인증종류를 선택하여 검색 가능





우수식품정보시스템

- 농사에 필요한 인증제도는 우수식품정보시스템(www.naqs.go.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우수식품정보시스템에서는 우수식품인증제도, 우수식품인증기관지정제도, 인증정보보회, 정보광장, 온라인기술지원/상담, 민원신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 우수식품인증제도에서는 가공식품산업표준 KS인증제도, 전통식품품질 인증제도를 확인할 수 있다.
 - 가공식품산업표준 KS인증제도에서는 인증제도 개요, 인증절차 및 기준, 인증품목, 평가사항, 인증심사수수료, 사후관리절차, 인증표지 및 작도법
 - 전통식품품질 인증제도에서는 인증제도 개요, 인증절차 및 기준, 인증품목, 평가사항, 인증심사수수료, 사후관리절차, 인증표지
- 인증정보조회에서는 가공식품산업표준KS인증조회, 전통식품품질 인증조회, 민간인증기관 지정조회를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주간 전남농업

VOL. 259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58213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061)330-2592 Fax. 061)335-4199

